

건축실무의 역사(3)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3)

—해방에서 한국전쟁—

宋 律/공학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Song, Yul

해방이전 한국인으로서 그려낼 수 있는 유토피아는 독립이었다. 그러나 독립이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혹자는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혹자는 아직도 독립이 없음을, 혹자는 일제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서로 주장하고 갈등하였다. 이념의 갈등을 셈으로 치자면 독립에 대한 열정 이상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념갈등은 미묘한 정서를 남긴다. 비이성적인 전쟁의 체합과 남북분단상황,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30년 가까이 이념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를 금지된 장난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건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금지될 필요도 없이 건축과 이념은 치열하게 투쟁한 경험이 전무하다. 건축가의 집짓는 일에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철부지 학생들의 설익은 세계관쯤으로나 여기었을까.

건축의 어떠한 면을 이해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이념과 건축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하다. 이념과 건축의 연관은 서양 근대건축의 특징적인 면 중의 하나이다. 건축가의 건축이 이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건축가의 실무가 감각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넘어, 인간이 어떠한 사회공간에서 살아야하는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철학적인 수준으로 고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활동의 최종목표인 유토피아를 실천하는 첨병으로서 건축가의 실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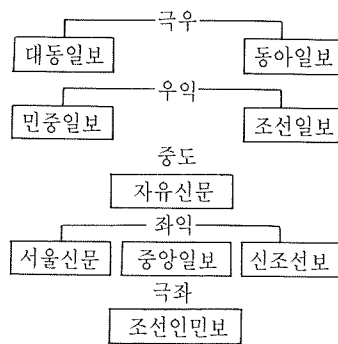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건축가들의 이념갈등을 마주대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양의 그것처럼 유토피아를 꿈꾸는 작업들의 궤적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으로 얽힌 불행한 개인들의 인생역정을 슬픈 듯 즐기는 이야기 듣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역사는 것이 씌어지는 시점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서양건축역사에서처럼 멋들어진 담론을 마주할 수 없음은 이후의 이념의 갈등을 장난쯤으로 만들어버린 내가 몸담은 보다 가까운 역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념갈등의 혼돈상태

담론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이 아니라면 상징적인 자료들을 나열하는 것이 보다 덜 진부한 방법이 될

(표 1) 미군정하 서울주요신문의 정치성향¹⁾



것이다. 40년대 말 미군이 비밀리에 조사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다양한 이념성향을 띠고 있었다. 역시 미군에서 비밀리에 작성된 당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치성향에 대한 보고내용은 좌우 이념에 당시의 분위기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해방이후 6.25전쟁 기간까지 사회 일반에서는 좌우 이념에 대한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비슷하였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건축계의 그러한 분위기를 말해 줄 만한 자료는 흔치 않으므로 오히려 미술계의 정리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분위기를 실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계에 있어서 좌우 이념대립 양상은 보다 뚜렷하였다.

해방이후 남한의 미술계는 우익의 대한미협과 좌익성향의 조선미술동맹이 대립하였다. 전쟁전 좌익척결의 정부방침에 따라 대한미협이 미술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함락된 뒤 서울의 미술계를 주도한 것은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와해된 사회주의 성향의 미술가 단체인 조선미술동맹이었다. 이 미술 동맹에는 김 면식, 최 재현, 배 운성, 이 쾌대, 기 윤, 이 해성, 정 종여, 이 건영, 이 석호, 박 팔찬, 김 종향, 손 응성, 김 기욱, 박 상욱, 김 홍수 등이었다. 이들은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할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 인민군에

1) G-2 Weekly Summery(주한미군정보참모부의 주간정보요약 비밀문서, 46년 3월)

(표 2) 1948년 예술 및 학술단체의 정치성향²⁾

일련번호	단체명	지지정부	성향	성격
114	조선미술원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화
136	조선건축기술협회	임시정부를 지지	우익	전문
167	조선미술협회	처음에는 우익, 점차 좌익으로 변질		문화
169	조선문학동맹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학
170	조선문학청년동맹		좌익	문학
171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좌익	문화
172	조선문화건설 중앙협회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202	조선토목건축동맹		좌익	토목
203	조선토목기술협회	임시정부를 지지	우익	
281	음악동맹		좌익	음악
282	음악가협회		좌익	음악
328	가극동맹		좌익	
356	국악원		우익	
382	과학자 동맹	인민공화국 지지	좌익	문화
383	과학기술연맹		좌익	문화

동조하여 잔류파라 일컬어진다. 이들은 우익계 미술가들의 숙청을 결의하였다. 대표되는 숙청 대상자는 고 의동과 장 발로 이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대한미협의 인물들이었다. 서울이 수복되자 최 재덕, 김 면식, 이 해성, 김 용준, 이 순종, 배 운성, 정 종여, 정 현웅, 이 건영, 이 석호 등은 월북하였다. 이들을 2차 월북자라고 한다. 서울수복후 고 의동 집에서 부역자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피난을 갔던 소위 도강파들이 주도하였다. 이 때부터 도강파, 잔류파의 구분이 생겼다. 부역심사에서 윤 효중, 김 환기, 이 봉상, 박 상옥, 도 상봉 등의 이름을 거론하였으나 1.4후퇴의 와중에 유야무야되었다.³⁾

6.25기간의 미술계의 상황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이 전쟁기간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며 비슷한 상황이 건축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증언들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이 시기의 분위기 전달에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김 태식씨의 이야기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7월 30일 이북으로 기차를 타고 갔다. 오 영섭도 같이 갔다. 여럿이 함께 갔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당시 상공부 국장 친구의 덕으로 나 같은 인계가 의용군에 가서야 되겠느냐고 설득해서 진남포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된 것이다. 거기에 와세다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 반동으로 몰리고 흥남으로 원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오 영섭은 거기 남았다. 요직까지 갔을 것이다.”

강 명구씨의 이야기⁵⁾

“해방직후의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꺼내준 사람도 있는데 말하기가 곤란하다. ...성 낙천씨는 재능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신원보증을 썼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찾아오니까 나와 의논한 후에 이민을 가게 되었다. 성 낙천씨는 오영섭씨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언젠가 형무소(인민군 제복으로 생각됨) 제복을 입고 오영섭씨와 이희태, 김 태식 그런 분들이 설치며 다니기도 하였다. 김 태식씨는 '동무 요즘 학회 왜 안나와' 하곤 하였다. 내가 김 태식씨를 여러번 꺼내 주었다. 김 태식씨는 설게로는 선구자였다.”

송 민구씨의 이야기⁶⁾

“...미군정이 실시된 후 좌익활동을 허용하자 정치적으로는 좌우익의 격돌로 조국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하였다.(중략) 명칭도 아주 능동적인 건축기술단이라 이름지어 (중략) 선배들께서는 강한 이미지가 풍기는 명칭을 택하였으리라.(중략) 김 동수 선생은 후에 국방부에 들어가 공병감도 하셨기 때문에 6.25때 참변을 당하신 원인이 되었다.(중략) 이 홍구 군이 사실은 좌익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9.28서울 수복 뒤에야 알았다.(중략) 유 상하 선생은 청년운동을 하였다하여 삼청공원에 끌려가서서 학살을 당하셨다고 한다.(중략)”

“조선건축기술단에서 기술단이라 함은 학술만이 아니라는 뜻으로 좌경적인 요소도 있었다.”⁷⁾

장 기인씨의 이야기⁸⁾

“내가 선생할 때 이념적인 학생 5명을 퇴학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결국 강경(우익)파들이 퇴학시켰다. 서울이 함락된 후 나도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의 보복이 두렵기도

2) G-2Weekly Summery(주한미군정보참모부의 주간정보요약 비밀문서) 총 507개의 단체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문화예술 단체만을 발췌한 것임. (1946년 3월5일 현재)

3) '전쟁속의 서울미술계', 61~63쪽

4) 1992년 필자면담.

5) 1992년 필자면담

6) 송민구, '잊을 수 없는 분들', 학회 30년 회고담.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5호 75년 8월)

7) 1992년 필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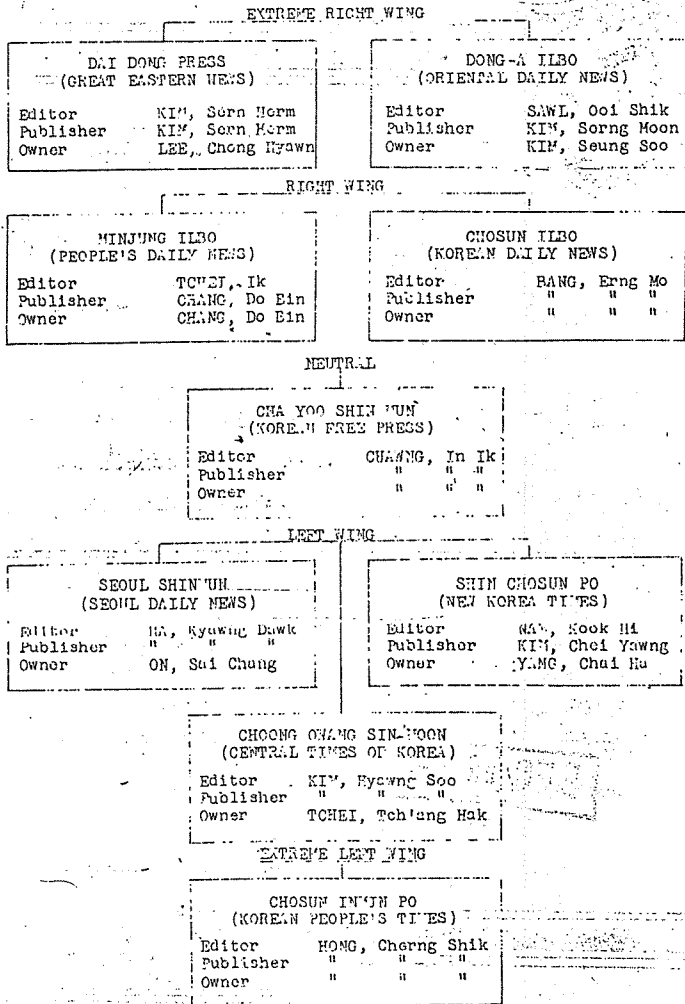
8) 1992년 필자 면담

SECRET

Incl #2 to G-2 Weekly Summary #18.

POLITICAL TENDENCIES OF LEADING SEOUL NEWSPAPERS

The following diagram illustrates the political leanings of SEOUL newspapers as analyzed by well-informed Korean journalists, and as indicated in the editorial comments of these news sheets.



Incl #2

SECRET

앞잡이 한다고.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 다음날 미군차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졸병하나가 전날일을 기억하고는 상사에게 전날 사건을 알렸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 길로 수도경찰청 장택상을 찾아가 당신네 형사출신 아무개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나를 린치하는데 주동한) 형사를 잡아들였다. 그 형사가 6.25전쟁이 터지자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고발하여 잡혀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살았지만 그 형사는 형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죽게되었다. 내가 대륙공영에 있을 적에 도와주었던 동기생들이 당시 기술단 단장이던 화공과 출신 이준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분이 직접 동대문서에 나와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풀어주면서 너 잘해라,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에 우리끼리 싸운 것이 많다. 건축학회(기술단)가 전쟁 중에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이 홍구가 우리집에 와 있었다. 동원도 시키고 그랬다.”(괄호 안은 필자 주)

사라진 사람들

전쟁 후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게 되는 건축가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 보다는 이후 한국근대건축사에서 잊혀지게 된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오 영섭

오 영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6.25 후에 그의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담자료를 통하여 그가 6.25전쟁 중에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영섭은 박길룡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41년 일본대학 고공을 졸업하였다. 1937년 박길룡사무소에 있을 당시 조선풍주택설계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한 경력이 있었다. 조선건축지에 오 공무소의

해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나와서 떠들고 다녔다.”

김 희춘씨의 이야기⁹⁾

“대륙공영사는 46년에서 6.25전까지 존속되었고 그 임원 전원이 전쟁 중에 죽었다. 나도 그것(대륙공영사에 근무했던 사실)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1950년) 7월 3일 동대문 내무서에 붙잡혀 갔다. 거기에는 장영선 국회의원과 경찰, 군인, 동회장

등이 붙잡혀 있었다. 자술서를 쓰고 또 쓰라고 해서 썼다. 다음날 이름을 부르며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에 갈라서 서라고 하는데 나만 한 편에 서게(다른 이들은 전부 다른 편에) 되었다. 결국 다른(편에 선) 사람들 모두 죽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어떤 날 미군 지프차를 타고 집앞에 내렸는데 좌익분자였을 동네 깡패들이 달려들어 나를 마구 때렸다. 미군

9) 1992년 필자면담

HUSAFIK, O.C of S., U-2, Tang & Soc Sec, 5 March 1949

Consolidated List of Prominent Korean Organizations II (Continued)

- 130. CHOSUN KILN KOOK KI SOUL HYANG H.W.Y. KOREAN NATIONAL FOUNDING TECHNICAL ASS'N
Left-Wing - Cultural
- 131. CHOSUN KILN KOOK KWANGSI H.W.Y. KOREAN RECONSTRUCTION COMMUNIST PARTY
No information available Political
- 132. CHOSUN KILN KOOK TCH'ONG NYANG H.W.Y.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FOR NATIONAL CONSTRUCTION
(Formerly: KOREAN PUBLIC PEACE UNION; KOREAN NATIONAL FOUNDING YOUNG MEN'S ASS'N)
Suppor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 133. CHOSUN KERN KOOK YONG CH'ONG NYANG H.W.Y. KOREAN YOUNG WOMEN'S ASSOCIATION FOR NATIONAL CONSTRUCTION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 134. CHOSUN KERN KOOK YONG CHOO H.W.Y. ASSOCIATION OF KOREAN MUSICIANS
No information available.
- 135. CHOSUN KERN LO TCH'ONG NYANG DONG H.W.Y. KOREAN YOUTH'S INDUSTRIAL UNION
Supports the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Youth Organization
- 136. CHOSUN KERN TCH'ONG KI SOUL HYANG H.W.Y. KOREAN ARCHITECTURAL EXPERT UNION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Professional
- 137. CHOSUN KIDUK KYO N.M. BOO D.I. H.W.Y. SOUTHERN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ITY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Religious.
- 138. CHOSUN KI DOK KYU TCH'ONG NYANG H.W.Y. FEDERATED Y. M. C. .. OF ALL KOREA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 139. CHOSUN KI DOK TCH'ONG NYANG H.W.Y. KOREAN YOUNG MEN'S CHRISTIAN UNION
Suppor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Youth Organization
- 140. CHOSUN KONG KOK KI SOUL H.W.Y. KOREAN INDUSTRIAL TECHNICIANS LEAGUE
No information available. Probably Neutral.
- 141. CHOSUN KWANGSI DONG KOREAN COMMUNIST PARTY.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Political
- 142. CHOSUN KWANGSI DONG SEOUL SI UI KOREAN COMMITTEE OF COMMUNIST PARTY
Joined anti-Fascist Commission which supports People's Republic
- 143. CHOSUN KWANGSI TCH'ONG NYANG DONG H.W.Y. (KOREAN COMMUNIST YOUNG MEN'S ASSOCIATION; KOREAN YOUNG COMMUNIST ALLIANCE) KOREAN COMMUNIST YOUTH UNION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 Political
Joined anti-Fascist Commission which supports People's Republic.
- 144. CHOSUN KOO HYANG DONG H.W.Y. KOREAN RELIEF UNION.
Probably same as the RELIEF HEADQUARTERS FOR KOREANS' RETURNING FROM ABROAD.
No information available.
- 145. CHOSUN KOHYANG DONG H.W.Y. BOMBOD RELIEF HEADQUARTERS FOR KOREAN RETURNING FROM ABROAD
No information available - Probably Left Wing.
- 146. CHOSUN KOKKON CHOUNBI D.I.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 147. CHOSUN KOKKON CHOUN BI D.I. TCH'ONG S.RYANG BOO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HEADQUARTERS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 148. CHOSUN KOKKON H.W.Y. KOREAN NATIONAL ARMY CANDIDATE.
Supports People's Republic - (Left Wing) Disbanded by MG Military Orga.
- 149. CHOSUN KOKKON DONG KOREAN NATIONALIST LEAGUE
Part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 - (Right Wing) Political
- 150. CHOSUN KOKKON TCH'ONG NYANG DONG H.W.Y. YOUNG KOREAN'S NATIONAL UNION.
merged into New Korean National Party (Right Wing) Political
- 151. CHOSUN KOKKON H.W.Y. KOREAN ARMY SUPPORTING ASSOCIATION.
Disbanded by MG.
- 152. CHOSUN KYANG CHAI KERN S.WE YONG H.W.Y. ASSOCI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Supports Provisional Government - (Right Wing) - Economic
- 153. CHOSUN KYO YOOK CHA D.I. H.W.Y. CHOUN BI H.W.Y. PREPARATORY COMMITTEE OF GREAT KOREAN EDUCATORS ASSOCIATION.
- 154. CHOSUN KYOYOOK HYANGSIN DONG H.W.Y. NEW EDUCATIONAL UNION OF KOREA.
Slightly Left Wing- Cultural
No information available.

조선공주택 현상 도판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1947년 6월 1권 2집 "현대건축과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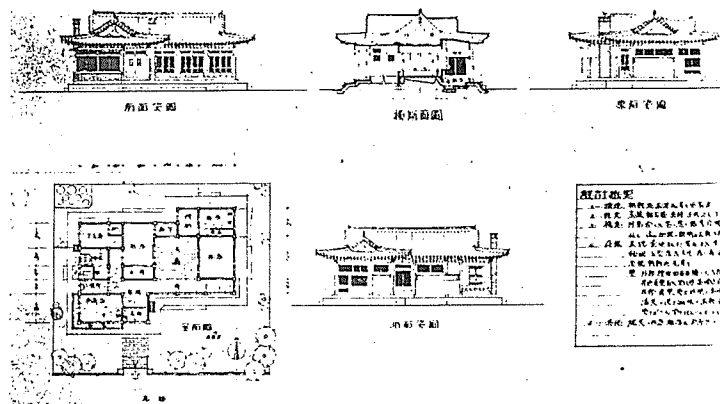
1948년 1월 2권 1집 "조선의 정원사"

성 낙천

성 낙천은 1942년 일본대학 공고를 졸업하였다. 김 한섭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일본대학 유학시절 오 영섭에게서 민족주의적 사상에 대한 영향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성 낙천도 오 영섭의 1년 후배인 것을 생각하면 오 영섭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건축경제사"를 통해서 그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든다. 생산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원시사회에는 다만 공동작업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통일하는 기술적인 생산관계만 존재하였지만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의 발달은 노동력만 소유하는 자와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물질적 제조조건 즉 생산수단만 소유하는 자로서 분열하게 되었으며, 그 관계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그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결합이 실현되는 특수한 성질과 방법이 그 시대의 사회구조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광고가 실려있는데, 이 중에 한옥주택 투지도 아래에 오영섭 설계사무소가 명시되어 있다. 41년 귀국하여 오 공무소 내에서 오영섭이 설계업무만을 전담하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있다. 오 영섭은 '조선건축'지 1948년 2권 1집에 소개된 서울만물전 현상설계에서 3등 2석으로 당선하였으며, 동 잡지에 그가 설계한 동도극장 설계 개요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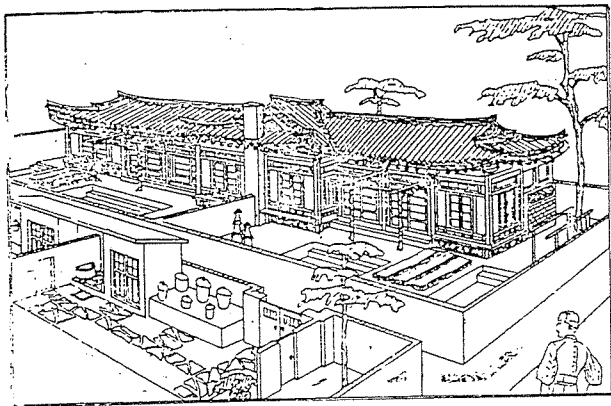


立面及平面圖

朝鮮風一等當選圖案
京畿府公平可選九社
吳英(建築事務所)

祝『朝鮮建築』之發刊

明明한新樣式生活은
建築부터改良하자



透視圖
(吳英燮建築設計事務所)

OH CONSTRUCTION

土木建築設計請負

合資社  吳工務所

社長 吳炳燮

電話東局 1967
2847 番

때문이다. 즉 이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구조의 경제시대를 결정함이나 역사발달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정치적 권력자의 榮枯盛衰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생산체력의 발전형식을 고찰하여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경제구조 생산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 사회제도, 사회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 문화, 예술 등의 성격을 결정하며 또 점차 혹은 돌발적인 변화가 그것들의 발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 시대의 특징이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한 곳에 결코 잠기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 역사의 각 시대는 내면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⁰⁾

1948년 1월 조선건축지에 실린 서울만물전 현상설계에서 당선한 그의 작품이 있다. 이 희태와 함께 신흥건축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성낙천은 월북하지는 않았지만 6.25 이후 극단적인 반공이념의 분위기로 계속 추궁을 받게 되자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민을 가기전에는 서울대학교 수원농대 기숙사 공사현장과 유네스코 회관 실시설계팀에서 잠시 활동하였다. 이민 후에는 건축을 포기하고 한방계통에 종사하게 된다.

이흥구

이흥구는 1941년 경성고공을 졸업하였고 해방 이후 조선건축기술단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조선건축기술단의 많은 일을 맡아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정식으로 조선건축기술단의 직원으로 일했다. 역시 조선건축지에 그가 쓴 글을 통해서 그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는 6.25전쟁 중에 월북하였다.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정치적으로 좌익정당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 1949년부터 시작하여 6.25를 기점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건축가들 중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는 건축가들의 활동이 사라지게 된다. 많은 숫자의 건축가들이 월북하고 또한 월남하여 건축계가 재편되기에 이른다. 월북건축가들은 다음과 같다.¹¹⁾

성명	소속
김번식	과도정부 건축서
유홍상	미군부대 부평 KBC군무, 서울공업중학교
민기홍	서울대건축과 재학
황의근	서울대 건축과 교수
안창모	서울대 건축과 교수
강상천	서울대 건축과 교수
오영섭	오공무소
전창욱	조선건축기술단
이흥구	조선건축기술단

김영건, 유건석, 윤정섭, 최재승, 홍경의, 김정열, 김현식, 안일수

월남한 건축가들도 상당수 있다. 월남 전 이북에서 활동을 하다가 월남한 건축가로 대표적인 인물은 김중업과 정인국이다.

김중업의 이야기¹²⁾

‘해방후 소위 공청(共靑)이라고 공산청년동맹 대장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요꼬하마 독립운동 사건의 연줄이 돼서죠. 그 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왜놈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10) 성낙천, “건축경제사의 일고찰”(조선건축 1권 2집-2권 1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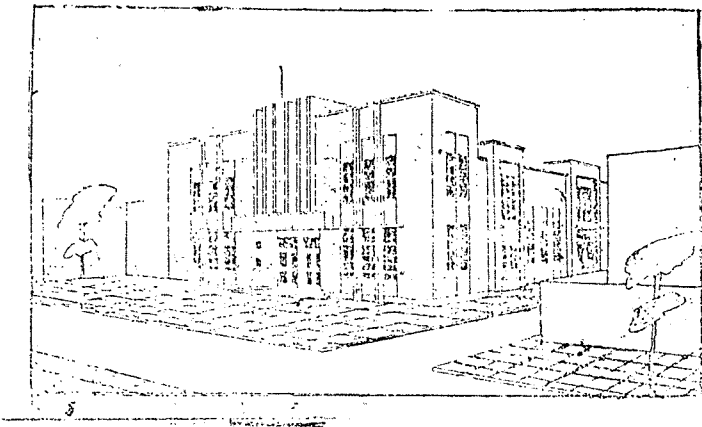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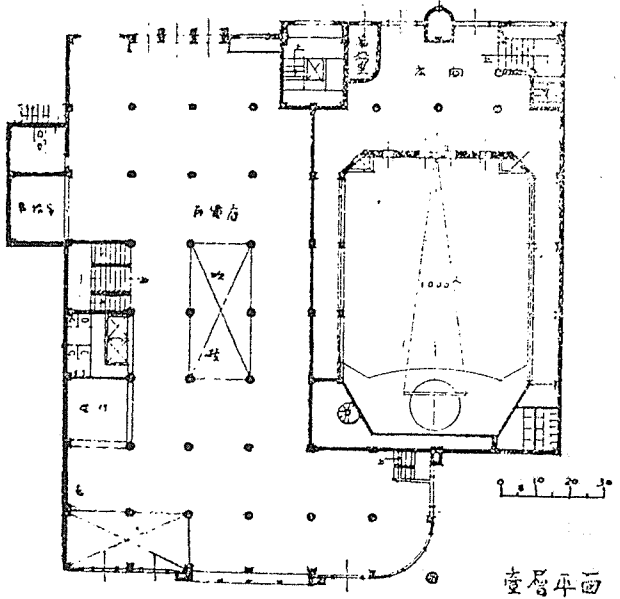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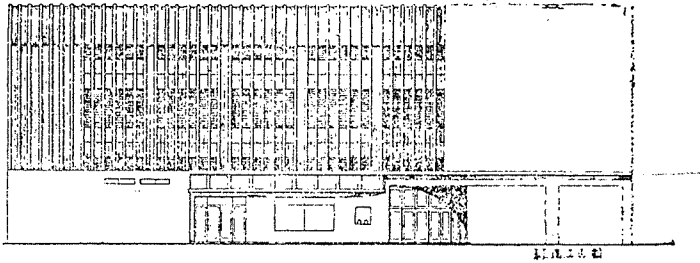
11) 안창모, “한국건축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12) 김정동 대담,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꾸뎀 1981 5~6 61쪽의 김중업 회고.

—(圖 3)—

第 3 等(1 席)當選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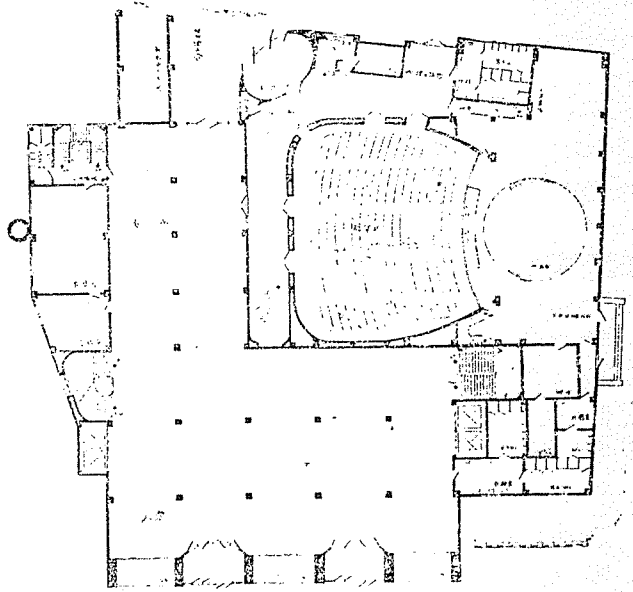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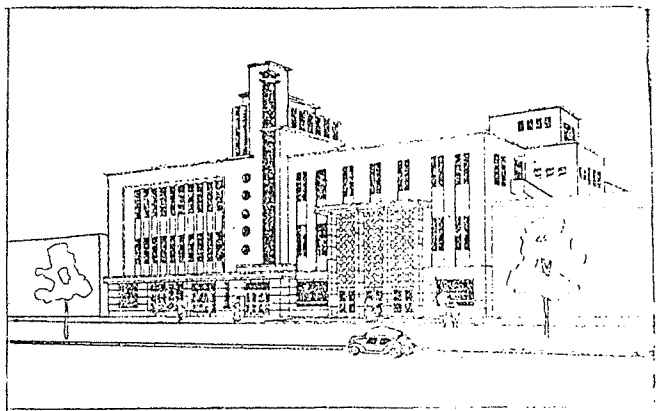
當選者 成 洛 天
(朝鮮建築技術協會評議員)
(新興建築事務所 經營)
李 喜 泰
(新興建築事務所 經營)



—(圖 4)—

第 3 等(2 席)當選作品

當選者 吳 英 燮
(朝鮮建築技術協會評議員)
(吳英燮建築事務所 經營)



‘건축동맹’을 만들어요. 거기서 연구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요. 위원장은 로보트지요. 조선 공산당 차량지원을 받아 소위 이북 5도에 있는 건축자재를 다 모으고 왜놈들이 쓰던 5층 빌딩인 평양의 ‘금천대 회관’을 접수하지요. ‘건축동맹 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5도의 건축동맹원들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지요. 그 때 김 일성이 나타나서 실망을 하고 난 사표를 제출해 버려요. (중략)’

김 두섭씨의 이야기¹³⁾

“김일성종합대학은 문리대만 있었다. 건축과는 대동공업전문에서 평양공업대학으로 그리고 김책공업대학으로 변해갔다. 김 참점(?), 길 경일(?), 박 형삼, 정 경운, 나 상기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해방 후 이북에서 건축이 먼저 발전했다. 당시 공사로 김일성 종합대학과 노동신문사, 평양역사 등이 있었다. 또한 평천리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5층 정도로 27동이 있었다. 이북에서는 학교에 방학이 없었다. 예를 들어 1년 중 8개월은 교육받고 4개월은 현장의 기사로 일했다. 월급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천리 아파트현장에 내가 근무했다. 기사장(현장총책)은 교수이던 정 인국씨였다…… 김 봉우씨가 건축가를 가르쳤다. 해방후 이북은 무임금이었다. 그래서 남한보다 빠를 수 밖에 없었다. 이북에는 설계사무소가 없었고 각 기관에 설계조직이 있었다.”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해방직후 조직된 조선건축기술단이 조선건축기술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쟁 후에는 대한 건축학회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조선건축기술협회가 존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건축학회 또한 1954년 창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에 창립되었으며, 그 존속이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병행되었다. 조선건축기술단은 1947년 4월 23일 3회 정기총회에서 조선건축기술협회로 명칭을 바꾼 뒤 1949년 12월 김 윤기, 김 순하, 유 상하 등 80여 명이 조선건축기술협회의 발전적 해소와 대한건축학회로 할 것을 검토하였다.¹⁴⁾ 대한건축학회는 1950년 1월 21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2월 25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결성식을 거행하였다.¹⁵⁾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체와 대한건축학회의 창립은 이 시기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일이다. 1945년 9월 해방 직후 조직되어 무려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남한의 대표적인 건축단체로 출발한 조선건축기술단 내부에는 이념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표면화 되었다. 1946년 12월 14일 2차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과 명칭변경이 제의되어 이념성향에 따라 ‘조선건축학회’, ‘조선건축회’, ‘조선건축동맹’ 등이 거론되었지만 각 안이 부결되고 종래의 명칭이 고수되었다. 동맹은 매우 좌경한 인상의 명칭이었다. 1947년 4월 23일 3차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기술단’에서 보다 온건한 ‘협회’로 변경하였으며 1948년 3월 27일 4차 정기총회에서는 기구를 사회주의권의 제도와 흡사한 중앙위원회 제도로 변경하였다. 조선건축기술협회가 앞서 살펴본 미군정 보고서의 내용처럼 좌익성향의 단체라고는 볼 만한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내부에 이념갈등이 있었고, 그 명칭변경과 회칙개정 그리고 이어지는 협회의 해산 이면에는 이념갈등이 가장

큰 요소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1949년 12월 협회가 해산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일대 탄압이 강해지던 시기였다. 1949년 5월 20일은 국회프락치 사건이 있었고, 이후 좌익세력에 대한 일대의 탄압이 가해진다. 같은 해 6월 29일 김구선생이 암살되고, 9월 27일에는 남로당의 거물급인 김 태준, 이 용운 등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다. 또한 10월 19일에는 남로당 및 전민전 산하 133개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취소가 결정된다. 더욱이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산이 그 이념적 성향 때문이었다는 심증을 굳게 하는 것은 1950년 창립된 대한건축학회의 결성과 관련된 보도내용이다.

“요전 2월 25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 결성대회를 보게 되었다. 이 학회는 말 할 것도 없이 미국의 AIA 영국의 BRIA(원문대로)와 같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아카데미하게 나가는 유일한 연구단체이다. 이 학회의 사업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계몽운동을 하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 각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한 성과 및 작품을 소개하는 강연회, 전람회를 개최하고 또한 건축에 관한 잡지 기타 도서를 간행한다하며 우리나라 건축사태 제반 난문제를 깊이 들어가 해결하는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 한다...”¹⁶⁾

학회 40년사에 정리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축학회 54년 3월 30일 회칙은 종전의 사업종목 규정이 목표지향적이며 현실참여의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건축학회의 회칙은 사업내용의 형식을 위주로 한 보수적인 규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건축기술자의 등록 배치 및 지도’, ‘건축교육의 진흥 및 노무자의 기술향상’, ‘건축 각 부문에 연락협력

13) 필자와의 면담. 김 두섭씨는 평양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월남한 건축가이다.

14) ‘학회 40년사’, 85쪽

15) 서울대학교건축학과 건우회지 ‘건우’, 1950년 3월 장간호.

16) 건우회지, 앞의 인용

